

曲阜孔氏學堂公派譜序

國之有史와家之有譜는其義一也昔者에蘇老泉曰一人之身이分而至於塗人하나니吾譜之所以作也라 하시고又曰觀吾之譜者

是孝弟之心이可以油然而生矣라 하니由此觀之컨대親親之心이在

於爲譜하니親親之義는天地之常也로다故로易에曰父父子子兄兄

弟弟夫夫婦婦而後에야家道正矣라 하니其義大哉로다豈不慎乎이오

於乎라譜者는譜其族也니同祖而有不爲同譜者하야系統之相違

者도或有之하며昆季之相換者도亦有之하니豈以同祖之孫으로而

知於如此哉리오寔出於譜不修之故也라蓋人之有族은如水之有

派하며族之同譜는如川之朝宗하니其流也順이면其歸也正이라爲

其同祖者는爲其同譜하야以爲親親之義可也니라

維吾東曲阜孔氏는大聖孔夫子之五十四世孫諱는紹니元朝에以

翰林學士로高麗恭愍王妣에以魯衛王女大長公主陪行으로始來

東國하시니 時即高麗忠定王之元年己丑이요 聖紀一千九百年이라

仕至平章事하야 勲封檜原君하고 仍居東國하야 遂封昌原伯하니 此

非漢江之聖裔夫아 自是以來로 吾東孔氏는 始爲沿流之求源하니

是爲譜首之祖也라 厥後子孫이 繁昌而蔓延於東國하야 文武忠勲

이 爲吾東之名族矣로다 子孫之衆多가 不讓於殷之子孫하야 其麗

不億而無譜면 不可考요 不可考則是爲塗人이리니 大凡以孔으로 爲

族者는 無一遺漏토록 盡入於派譜하면 雖百世之遠이라도 按之則若

有綱綸之綱과 昏衢之燭하야 無至後日之悔가 不亦可乎이리요 維我

東始祖에 諱는 紹요 號는 昌庵公이니 本以翰林學士平章事檜原君

으로 生子諱帑하시니 帑生二子하시고 長曰漁村俯요 次曰孤山僊이니

僊之五世孫은 卽諱는 珪요 號는 學堂公이 是也이시니라 公이 生于和順

하사 本以生質之美로 愛親愍長과 隆師親友之道에 維仁之德이 斯極

하시고 體用綱目과 修己治人之方에 透關之誠이 不息하시오니 夫學堂

之義不亦宜乎<sub>리오</sub> 蓋嘗關論之<sub>컨대</sub> 國有史典<sub>하며</sub> 家有派譜<sub>는</sub> 乃稽古  
應新之常經<sub>이며</sub> 培根達支之通義也 則夫以人者之仁<sub>으로</sub> 寧忘其本  
也哉<sub>리오</sub> 若夫人無遠慮<sub>면</sub> 必有近憂<sub>하나니</sub> 故<sub>로</sub> 百爾所思之下<sub>에</sub> 始到  
己未春<sub>하야</sub> 倣爲提案<sub>할세</sub> 一之以散居異域之宗族<sub>하여</sub> 二之以三親九  
族之孝友<sub>하며</sub> 三之以後生啓蒙之資材<sub>하야</sub> 作爲一譜<sub>하여</sub> 以致其實焉  
<sub>하노니</sub> 後來<sub>에</sub> 若無國典家譜之傳統 則夫子淵源之脈<sub>과</sub> 從行叔侄之  
序<sub>를</sub> 豈足以箕之哉<sub>리오</sub> 茲以以上<sub>으로</sub> 推而行之 則其在孔門<sub>에</sub> 庶幾  
有補於派譜之萬一爾<sub>리니</sub> 維夫子之諸仍<sub>는</sub> 可不念哉<sub>리오</sub>

孔夫子誕降後二千五百三十年歲端己未春三月上巳

後學繡湖 劉漢鳳 謹序

공부공씨 기미파보서 한글해

나라의 역사와 집안의 족보는 그 뜻이 같으므로 옛자에 말하시되 한사람의 몸으로 여러사람이 되나니 그러므로써 이 족보를 지었다 하시고

또 말하되 우리 족보를 보는자는 효도하고 공경 하는 마음이 자연히 난다하셨으니 이로써 보건데 친하고 친하는 마음이 족보를 하는데에서 있으니 친하고 친하는 뜻은 인생에 몇몇함이로다 그런고로 주역에 말하되 아버지는 아버지 도로써 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로써 하고 형은 형의 도로써 하고 아우는 아우의 도로써 하고 지아비는 지아비 도로써 하고 지어미는 지어미 도로써 한 연후에야 집안이 바로 잡힌다 하셨으니 그 뜻이 크도다 어찌 조심치 않으리오 아! 슬프다

족보란 것은 그런가를 합한것이니 같은 할아버지로써 족보를 하지 않은자가 있어 계통이 서로 어기는 자도 혹 있으니 형제가 서로 박귀는 자도 또한 있으니 어찌 같은 할아버지 손으로써 이와 같은 데에 이르리오

이는 족보를 탐지 않은데서 나온 까닭이니라 대개 사람이 일가가 있는 것을 보건데 물줄기와 같으며 일가에 족보를 같이 함은 시내물이 바다에 모이는 것과 같으니 그 흐름이 순하면 그 돌라감도 바른지라 그럼으로 그 할아버지를 같이 하는자는 그 족보를 같이 하여 써 친함을 친히 하는것이 옳이라

오직 우리 동방에 공부공씨는 대성 공부자의 五四세손임으로 휘는 소자이시고 원나라에 할림학사로 고려 충정왕때에 노위왕여 대장공주의 배행으로 비로서 동국에 오시니 그때인즉 고려공민왕 원년 기축년이요 성기는 一九〇〇년이라 벼슬이 평장사에 이르러 공의로 회원군을 봉하시고 이에 동방한국에 사지사 마침

내 창원백을 봉하시니 이것이 한강의 공부자 후손이 아닌가 이로부터써 음으로 우리 동방의 공씨는 비로써

흐름을 좇아 근원을 구하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족보 첫머리가된 할아버지로서다

그후로 자손들이 번창하여 동국에 뻗어 문무충신의 공이 우리동방의 명문이 되었도다

자손의 많음이 온나라 자손에 못지않아 그수가 많은데 족보가 없으면 가히 참고할수가 없고 참고치 못하면 로상행인이 된것이니

대개가 공씨로써 일가된자는 한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무두 파보에 들면 비록 백대가 멀지라도 살펴보면  
벼래줄에 그물이 있음과 같으며 어두한 거리에 촛불이 있는것과 같아서 후일에 회계 하는데 이르지  
안함이 또한 옳치 않으리요

우리동방 시조의 휘는 소자시요 호는 창암공이시니 본래 할림학사와 평장사와 회원군으로 아들의 휘는  
여자이요 여자가 두아들을 두시니 큰집은 어촌이요 작은집은 고산이라 고산의 five손으로 즉 휘는 규자  
요 호는 학당공이신이라

학당공은 화순에 나오시사 본래 친절이 아름다운 분으로써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함과 스승을  
높이며 벗을 친히하는 도에 그 어진덕이 이에 지극하시고 몸을 닦고 사람을 다사리는 법에 철두철미 하  
시니 내개 학당공의 뜻이 또한 마땅치 안하리요

대개 일족이 의론하던대 나라에는 사전이 있으며 집에는 파보가 있음은 예를살피 세로움을 응하는데 벗  
벗한 법이며 뿌리를 불도두고 가지를 발달하는데 통한 뜻인즉 대개 사람이란 자는 어짐으로서 엇지 그  
근본을 이즈리오 만일 대개 사람이 멀리 생각을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나니 그러므로 생각하

고 또 생각한 끝에 비로서 기미년 보에 이르러 제안을 할제 첫째는 흠여저사는 일가로써 하며 둘째는  
삼친 구족이 회의도 하고 우애하며 셋째는 후 생을 알리는 제료로 삼아 한후 보를 만들어서 그실상을

이루노니 뒤에서 만일에 나라의 글과 집에 족보에 전통이 없으면

공부자 자손의 혈맥과 일가의 촌수 차례를 어찌 족히 알리오 이에 이상으로써 밋고 나가면 그 공씨문

에 있어 가히 파보에 만분지 일이라도 모택이 있으리니 오직 공부자의 여러 후손은 어찌 가히 생각하지

않으리오

공부자 한강후 성기二五三〇년 기미 춘삼월

한글해 후손 공 인 수

### 曲阜孔氏學堂公派譜序

程夫子云管攝天下人心 인대 收宗族厚風俗 하야 須是明譜系 라하니

譜爲孝悌作也 라 上焉而世代寢遠 이면 易至忽忘 하야 非譜 면 無以

序也 요 下焉而族屬愈疏 면 易至渙散 하야 非譜 면 無以聯也 라 夫一人

之身 이 化千萬人 하고 一世之近 이 綿數十世 라 其間原委曲折 이 皆由

譜而明 하니 若網之有綱 이요 裘之有領 하야 舉之而有條 하고 委之而

不紊故 로 觀於其譜而不油然而生孝悌之心者非所謂譜也 라 然譜

莫盛於今 하니 其由在衰世意也 라 天理 는 難明而易晦 하고 人事 는 難

聚而易散하니均視之愛를有不假顧也요路人之歎을亦思必至也라

欲採其弊면莫先於譜니譜之有補於世教가曷云少哉아吾曲阜之

譜가以漁村孤山伯季兩先生之後裔而成者合焉則曰大譜요分

之則曰派譜而孤山之脚下에有二派하니一은學堂公이요一은判書

公이라今之爲譜者는即學堂公이라今距其世甚遠하야子姓之遍於

域中者其麗不億而大譜之修凡七八矣라今又獨舉其季派而譜

焉하니蓋其意가豈非更出蘇氏譜之義例而譜吾作也獨詳與尊吾

之所는自出者乎아情意가於是乎無不融貫이요倫理가於是乎無不

周編하니其所以用心於述先惇宗之道者鑿鑿焉無不中規矣라然

則吾譜之於舉遠篤近에豈或有偏此而遺彼者乎아雖然이나抑有

一說焉하니經非不尊也오傳非不詳也로되徒能讀耳요不求聖賢作

經傳之本意則雖讀盡萬卷書라도何益之有哉아非獨經傳然也라

惟譜도亦然하니譜焉己요都不省念祖德貽孫謨之道則譜於孝悌

曲阜孔氏已未派譜

之心과篤敬之行에了無干涉矣니 將焉用彼譜哉아 窃念漁孤兩先生이 伯季挺出하사 明大義於麗季하니 其後孫之得於氣類而興於觀感者或以德學或以氣節或以文華로 代不絕書하야 屹然爲域中古家則今譜中諸宗族라 所當勉者又不在譜之了印而在克繼家聲而已라 然則立心乎忠信之德하고 興行乎孝悌之懿하야 恐先業之罔라 或繼也요 念孫謨之必이 有貽也하야 大有所用心於編帙之外然後에 始爲不負成譜之意矣니 彼世變之幻影이 奚足爲所動哉아 凡我諸宗은 盍共勉旃가

歲己未三春之節上澣

後孫振錫

謹識

曲阜闕里誌

孔子는殷人之後오 其先은 出自黃帝라 帝生玄囂玄囂生嶠極嶠極生帝嚳 帝嚳 生契하니 契爲帝堯臣이라 始封于商하야 賜姓子하니 是爲子姓之祖라 契生昭明昭明生相土相土生昌若昌若生曹圉曹圉生冥



文宣王五十四世孫東國派

紹

初諱昭及仕麗朝  
避光宗諱改爲紹  
字虞卿號昌庵  
聖紀一八五五年甲辰生

子 帶

字錫爾初諱希  
麗朝官集賢殿太學士  
同平章事知鷹揚軍  
千牛衛大將  
洪武己酉以郎官正郎  
按廉嶺南當時名士  
詩讚功德牧隱撰其  
按行狀其後陶隱公亦  
撰  
聖紀一八八〇年己巳生

子 俯

字伯恭號漁村  
聖紀一八九七年丙戌生  
洪武九年丙辰生員  
同年文科官至判  
太宗三年癸未除寶文閣  
提學不仕與鄭圃隱李牧  
隱友善昌和之編多載  
牧隱集筆苑首題  
筆將鍾王墓水原廣德  
神福寺左麓壬坐  
耦王九年以太常筵議  
貶李仁任諡曰荒謬  
國論快之牧隱製漁村  
字說曰俯字取正考父  
三命之義爲勝國名流  
標榜八清之首入文獻  
錄配綾城具氏墓合窆

尹

五十四世

五十五世

五十六世

五十七世

五十八世

五十九世

曲阜孔氏已未派譜 第一卷

西面杜陵里村后斗尺山南麓子坐

具有碑碣床石望柱誌石埋墳上西方五步

配貞敬夫人 皇甫氏 學士榮女墓同原 子坐

氏贊成事晋慶女墓奉化太白山南麓下方下峙壬坐原

### 子 儂

字伯良號孤山 聖紀一八九九年戊子生

洪武十三年庚申登第甲子官至門下侍郎同平章事與

圃牧諸賢友善講明正學以斥佛果疎見忤竄禮安賦

青山白雪圖寒風詩付己意牧翁大贊為當時名流襲

標榜九逸之首我太宗朝累徵不起 諡順天就道有詩

曰起伏衡天意屈伸渡海心又曰石立千秋面江浮萬

古聲守國立節歿於謫所享年五十六臨終雁鳴三日

歿後雙雁落洲而死世稱三日浦飛落洲墓全羅南嶽

### 子 臣肱

字治善號雲菴 聖紀一九三五年甲子生官至神護衛

大將軍 配淑夫人密陽朴氏 承旨翰女設壇于

聖紀二五二八年十月七日廣德山祭聽谷壹壹○番地

聖紀一九七八年丁未生 官保勝中郎將精勇校尉

配淑夫人廣州李氏 散員藝女 設壇于己亥年秋

靈山郡都泉後麓

### 子 暉

字石泉號雲泉 官至司成兼兩館大提學始居和順

配貞敬夫人慶州金氏父牧使 璜 設壇于

聖紀二五二八年十月七日廣德山祭聽谷壹壹○番地

初諱天壽 聖紀一九九三年壬戌生 官中訓大夫文參判國朝傍目以初諱記載

贈刑曹判書墓靈山郡脉丑坐

配貞敬夫人天安全氏縣令進祐女 設壇于己亥年秋

靈山郡郎泉後麓

### 子 和

見卷一三

### 子 宗周

見卷一三四

### 子 從周

### 子 仁周